



지회 동정



경기북부지회 신임 경기북부지회장 위촉

성명 : 강용한
 주요경력 : 현 자연조경 대표
 경기북부지회장으로 강용한 자연조경 대표가 위촉되었다.

강원지회

강원지회 임원개선 대의원 회의 개최

- 일시 2012년 12월 24일
 - 장소 강원지회 회의실
- 강원지회는 2012년 12월 24일 강원지회 회의실에서 임원개선 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동일부 지회장 외 1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임원개선을 실행하여 새로운 지회장과 사무국장을 선출했다.

신임 강원지회장 위촉

성명 : 김진걸
 주요경력 : 현 현진조경(주) 대표이사
 강원지회장으로 김진걸 현진조경(주) 대표이사가 위촉되었다.



강원지회 2013 정기총회 개최

- 일시 2013년 2월 27일 11:00
- 장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 참석 59명 (회원:27명, 가족:25, 내외빈:7명)
- 주요안건 - 2012년 감사보고,
 - 2012년 지회장 활동 및 업무보고,
 - 신임지회장, 감사, 사무국장, 대의원선출(추인),
 - 기타 부의안건.





**충북지회
신임 충북지회장 위촉**

성명 : 최항욱
주요경력 : 현 송림조경 대표
충북회장으로 최항욱 송림조경 대표가 위촉되었다.

**대전·충남 동부지회
대전·충남동부지회 제20차 정기총회 개최**

- 일시 2013년 2월 5일 오전 11시
- 장소 대전 노은동 동신수산
- 참석 이상권 이사 외 39명

대전·충남 동부지회에서는 제 20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40명의 지회 회원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감사 보고 및 회무보고를 진행했으며,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에 대해서 논의했다. 더불어 신임 지회장으로 주성조경 이용규 대표가 선출되었고, 공식적인 일정이 진행 된 이후에는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신임 대전·충남 동부 지회장 위촉

성명 : 이용규
주요경력 : 현 주성조경 대표
대전·충남 동부 지회장으로 이용규 주성조경 대표가 위촉되었다.





지회 동정



전남 동부지회 신임 전남동부 지회장 위촉

성명 : 김상철
 주요경력 : 현 (주)다올 대표이사
 전남동부 지회장으로 김상철 (주)다올 대표이사가 위촉되었다.

광주·전남서부지회

광주·전남서부지회 제23차 정기총회 개최

- 일시 2013년 1월 24일
- 장소 상록회관(4층) 장미연회장
- 참석 58명

광주전남 서부지회는 2013년 1월 24일 상록회관(4층) 장미연회에서 제 2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임원선출이 있어 (주)상록건설조경 허백현 대표가 지회장에, 대각농원 조광훈 대표가 사무국장에 각각 취임하였다. 이 외에 2012년 회무보고 및 사업실적 보고, 회원현황등에 관한 기타 안건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임 광주·전남서부 지회장 위촉

성명 : 허백현
 주요경력 : 현 (주)상록건설조경 대표
 광주·전남서부 지회장으로 허백현 (주)상록건설조경 대표가 위촉되었다.



경남서부지회

경남서부지회 제 23회 정기총회 개최

- 일시 2013년 2월 5일(화) 오후 6:30
- 장소 진주동방호텔 5층

경남서부지회는 2013년 2월 5일 오후 6:30분부터 진주에 위치한 진주동방호텔 5층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임원 개선이 이루어 졌는데, 이용호 유성조경 대표가 지회장, 김영보 금빛조경 대표가 사무국장에 올랐다. 또한 지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감사패 및 모범회원, 공로패 수여식도 함께 열리며 회원간 화합을 도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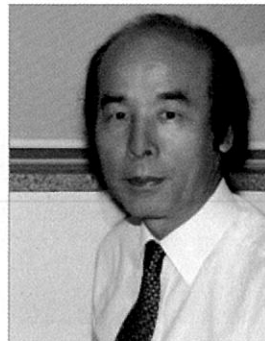
신임 경남서부 지회장 위촉

성명 : 이용호
 주요경력 : 현 (주)유성조경 대표이사
 경남서부 지회장으로 이용호 (주)유성조경 대표이사가 위촉되었다.

경남중부지회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회 - 창녕제일고 산학협력 업무협약(MOU) 결실 맺다

국토개발의 녹색성장과 창조적 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회(지회장 정성태)는 저출산과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폐교위기에 처한 경남 창녕제일고등학교(교장 윤수근 : 사진)의 '학교살리기 운동'에 회원사가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회 동정

경남중부지회



〈 창녕제일고등학교 전경 〉



〈 입학식 장학금 전달 장면 〉

창녕제일고는 1951년 창녕농업고등학교로 개교한 63년 전통에 7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중심학교였으나 1990년에 자동차와 신설되고 2002년에 농과(원예과, 농업토목과)가 신입생 지원자가 없어 폐과가 되자 4만여평의 실습농장과 실험실습장, 고가의 기자재가 폐기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윤수근 부장(현 교장)의 주도로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자는 공감대 확산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특히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회 회원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은 조경과 신설로 이어졌다.

조경과의 실내조경원, 분재원, 유리온실, 시공실습장, 조경설계실 등 실험실습장과 수목원을 조성하는 일에 경남중부지회 회원사가 조경석(서득조경 대표 전길수)과 조경수를 기증하거나 기술지원을 하였고, 곰솔조경(대표 박정기)은 수목원 연못과 퍼걸러를 시공하였다.

조경과가 어렵게 신설되고 실험실습장도 조성되었지만 문제는 신입생 모집이었다. 30명의 정원을 채우는 일이 쉽지 않기에 창녕, 밀양, 마산, 창원 등에 홍보와 함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학교 살리기 신입생 특별 장학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2002~2003년 창녕제일고 교직원이 합심하여 급료에서 매월 적립한 장학금 1,000만원을 시작으로 경남중부지회 회원사가 적극 참여하여 2013년 3월 현재까지 50명의 장학금 기부자로 부터 6,8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235명의 신입생에게 지급하였고 이 장학금 기부 릴레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종신 기부를 약정한 ㈜자연조경 대표 조영래는 매년 100만원씩 10년간 1,000만원, 우리농장(대표 최민수)은 4년째 400만원, 곰솔조경(대표 박정기) 봉수조경(대표 윤수근) 용수농원(대표 이춘식) 회원조경(대표 이건설) 고현조경(최종국) 서덕조경(전길수) 등 많은 회원사가 조경산업 후계자 육성 차원의 장학금을 기부하여 지역사회로부터 경남중부지회의 창의적인 활동과 조경산업 후계인력 육성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80명의 회원이 매월 월례회를 갖고 조경기술 연수와 정보를 교환하고 ㈜경남조경수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확장하고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연수를 통한 조경 전문성을 신장하며, 경남 도내 3개 조경과 고등학교 졸업식에 모범학생을 추천받아 지회장의 표창장을 전수하고 있다.

산학협력 업무협약(MOU) 기관인 창녕제일고에 산학겸임교사(김종렬 사무국장)를 파견하여 학생들의 조경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의 우수 농장 체험학습과 3학년 현장 실습과 졸업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와 공동으로 조경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10년 전 학생 지원자가 없어 폐교직전의 위기에서 현재는 학생수가 넘치는 명문학교로 도약하고 있다. 고학력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특성화고 체제 개편과 직업교육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전국 350개 특성화고 중 5개를 지역거점 특성화고를 지정하였는데 창녕제일고가 교과부와 경남교육청으로부터 경남거점 특성화고로 선정되어 20억원의 예산으로 실내체육관과 급식소가 준공되었고, 50억원 예산으로 100명 수용 규모의 현대식 학생기숙사와 신설 멀티테니컬과 실습장과 기자재를 확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력과 인성 수준이 급상승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졸업생 139명의 진로는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10명, 삼성에버랜드, CJ 제일제당 등 55%가 취업하였고, 3년제 국비 장학생으로 운영하는 한국농수산대학 5명 등 45%가 대학 진학을 하였다.

창녕제일고등학교는 '암석도 옥토된다'는 신조로 '근면, 성실, 창조'의 교훈 아래 '유능한 기능인 육성'의 교육목표 실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합심하여 거점특성화고의 정책 목표인 '선취업·후진학'을 정착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1인 3개의 국가기술자격(조경, 자동차정비, 검사, 굴삭기, 지게차, PC활용능력 등)을 취득하여 60% 이상이 선취업하는 '1360 프로젝트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윤수근 교장은 '폐교의 위기에서 명문 특성화고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학생들의 우수한 기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기술 명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윤수근 (창녕제일고등학교장 / 경남중부지회 부지회장)